

빅리거 류현진 - 김광현 부진 탈출 시도

16일 시즌 두번째 동반 출격 양키스·마이애미 상대 지난 등판 나란히 선발패... 팀·개인 위한 역투 절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1일 만에 같은 날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16일 오전 8시 7분(한국 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는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른다.

허리 통증을 느껴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던 김광현은 같은 날 오전 9시 15분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 5일 나란히 등판해 같은 날 패전의 멍에를 썼다.

류현진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5%이닝 7피안타 7실점(6자책)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에 홈런 2개를 내줬고, 볼넷(3개)도 가장 많았다. 실점은 토론토 입단 후 최다였다.

김광현은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3이닝 2피안타 3실점 해 패전 투수가 됐다. 3회말 타석에서 땅볼을 치고, 전력 질주하다가 통증을 느껴 4회초에 조기 강판하기도 했다.

올 시즌 두 번째 '동반 등판'에서는 반등을 노린다.

류현진은 양키스전에서 개인 통산 2승 2패 평균자책점 4.46을 올렸다. 올해는 양키스와 두 차례 만나 1승 평균자책점 1.50으로 잘 던졌다. 4월 2일 개막전에서 5%이닝 4피안

타 2실점의 무난한 투구를 했고, 4월 14일에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비자책) 호투로 선발승을 챙겼다.

류현진은 최근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패했다. 올 시즌 그의 성적은 5승 4패 평균자책점 3.34다.

토론토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에서 점점 밀리는 터라, 에이스 류현진의 호투가 절실하다.

김광현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11일 만에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북극전 상대는 마이애미다. 김광현은 마이애미와 처음으로 맞붙는다.

김광현과 맞대결할 선발 투수는 좌완 트레버 로저스다. 로저스는 올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2.02로 호투 중이다.

김광현의 시즌 성적은 1승 4패 평균자책점 4.05다. 4월 24일 신시내티 전 이후 7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아직 퀄리티스타

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한 적도 없다. 팀과 개인을 위해 역투가 필요한 시점이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2020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9월 25일에는 '동반 선발승'을 거뒀다.

당시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김광현도 밀워키 브루어스 타선을 5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한국인 투수가 같은 날 동반 선발승을 거둔 건, 2005년 8월 25일 박찬호(당시 샌디에이고)와 서재응(당시 뉴욕 메츠) 이후 15년 만이었다.

올해 6월 5일에는 류현진과 김광현 모두 고개를 숙였다. 11일 만에 다시 동반 선발 등판 기회가 왔다.

한국 야구팬들은 두 번째 동반 선발승을 기대하며 16일 류현진과 김광현의 등판 결과를 기다린다. 연합뉴스



US여자오픈에 출전해 샷을 하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연합뉴스

고진영·박인비 메이저 전초전 출격

LPGA투어 마이어 클래식 KPMG 앞두고 샷 감각 조율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과 2위 박인비(33)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실전에서 샷 감각 조율에 나선다.

LPGA 투어는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블라이더필드 컨트리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리는 마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230만달러)으로 이어진다.

2014년 시작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6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한국인 챔피언이 세 번 탄생한 대회다.

2014년 이미림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2016년 김세영, 2018년 유소연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는 24일부터 조지아주 존스 크

리크의 에틀랜드 애슬레틱 클럽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직전 개최돼 선수들이 기량을 가다듬을 기회로 여겨진다.

세계랭킹 1, 2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과 박인비가 선봉에 나선다.

지난해 LPGA 투어에서 4개 대회만 출전하고도 우승과 준우승을 한 차례씩 차지하며 삼강왕을 거머쥔 고진영은 이번 시즌도 8개 대회 중 5차례 톱10에 드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아직 우승은 없다.

올림픽 2연패 도전을 준비하는 박인비는 3월 KIA 클래에서 우승하고 평균 타수 1위(69.32타), 올해의 선수 포인트 4위(69점) 등을 달리며 순항 중이다.

이들 외에 이미림, 이정은, 김아림, 전인지, 박성현, 허미정 등도 출전한 다. 세계랭킹 3위 김세영과 9위 김효주는 쉬어간다. 연합뉴스



가벼운 발걸음 15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1회초 2사 만루 상황에 삼성 이원석이 홈런을 작렬시키고 베이스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ACL 지피지기 백전 백승

(아챔) K리그 '싱크탱크' 적극 지원 22일 울산·전북·포항·대구 출전

아시아 축구 무대 정점에 나설 팀들을 위해 K리그가 '싱크탱크'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를 앞두고 기술연구그룹(TSG)을 통해 참가 구단에 상대 팀 전력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ACL 조별리그는 기존 32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20개 팀이 4개 팀씩 5개 조로 나뉘어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에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참가하는 팀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나라에 기회가 주어질 필리핀, 싱가포르 등 ACL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없던 국가의 팀들이 가세했다.

K리그 팀의 주요 경쟁 상대였던 호주 팀들은 자국 리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 참가 팀의 면면이 예년과는 다소 다르다.

지난해 ACL 챔피언 울산은 베트남(태국), 비엠티(베트남), 상하이 상강(중국)-카야(필리핀)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F조에 편성됐다.

G조의 포항 스틸러스는 캄보디아(태국), 나고야 그램퍼스(일본), 조호르 다를 박진(말레이시아)과 만난다.

전북 현대는 H조에서 치앙라이 유나이티드(태국), 감바 오사카(일본), 탬퍼리스로버스(싱가포르)와 맞붙는다.

대구 FC는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 베이징 궈안(중국), 유나이티드 시티(필리핀)와 J조에 포함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들 팀이 K리그가 한창일 때 ACL 상대 팀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특히 동남아시아 팀의 경우 정보를 접할 경로가 부족한 만큼 TSG를 통해 전력 분석 자료를 제공해 돕고 있다.

TSG는 12명 전문 PGM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술 전문가 집단으로, K리그 전 경기 현장 출장과 평가, 유럽 5대 리그 분석 보고서 작성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구·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ACL에 대비해선 단순히 상대 팀의 경기 화면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각 팀의 전술적 특징, 주요 선수 소거 등을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TSG를 통해 상대 팀 관련 자료를 만들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ACL 참가 구단들이 정보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최고령 20-20클럽 가입하나

KBO리그 최고령 기록 기대

프로야구 20홈런-20도루 기록은 '호타존족'의 상징이다.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20-20을 달성한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총 52명이 20-20클럽에 가입했으나 1년에 채 2명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2019년엔 단 한 명도 20-20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해엔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김하성(현 샌디에이고)과 NC 다이노스 애런 알테어 등 단 2명이 20-20 기록을 달성했다.

1982년 7월 13일생인 추신수는 팀이 54경기를 치른 14일까지 10홈런-

13도루를 기록했다.

팀이 올 시즌 37.5%의 경기를 치른 가운데, 추신수는 벌써 20-20 기록의 반환점을 돌았다. 만약 추신수가 올 시즌 20-20 기록을 달성하면, 그는 최고령으로 20-20클럽에 가입한다.

이미 추신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세 차례나 20-20 기록을 세운 바 있다.

KBO리그 내에서도 세 번이나 20-20 기록을 세운 이는 많지 않다.

추신수는 올해 개인 네 번째 대기록에 도전하는데, KBO리그 역사상 20-20클럽을 네 차례 달성한 선수는 박재홍, 양준혁 뿐이다. 5차례 달성한 선수는 없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미팅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0 보도발상 스페셜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1:50 한국의 인류유산(재) 11:55 슈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이도 꿈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50 기분 좋은 날 11:20 이 맛에 산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로포퍼티 9:10 국한지음 9:1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5 SBS 뉴스 11:0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30 에니깰리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땀 땀땀 8:45 한글공룡 이야기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국한지음 14:10 EBS 다큐프라임 16:00 마사와 꿈 16:30 땀땀 땀땀 17:45 역사놀이터 아이마리 19:50 가족이 맞는다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백투더유지 13:50 근대사100년. 그들의 증언 13:55 슈퍼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열린재판 15:10 디류 온(재) 16:00 사시간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대박부동산(재) 13:20 영상앨범 산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보스 패밀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갑스페셜(재) 17:00 풋볼 V-우주수호대 17:15 영상앨범 토크쇼 17:30 골연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처치평평 시즌3 12:50 뽀롱뽀롱 친구천구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워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시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 워밍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월드컵산 GoGo 17:00 SBS 우뉴스 17:35 JIBS 뉴스 17:50 JIBS 청사특집 토크쇼 플라스타, 오영원에서 자원으로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강기에 김승욱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의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희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속이도 꿈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랜선 장터 1부 22:10 랜선 장터 2부 22:40 유승영의 동물터비(재) 23:40 스튜디오 K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매너를 시즌2 22:30 라디오스타 1부 23:30 라디오스타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1부 21:50 골 때리는 그녀들 2부 22:40 백중환의 골목시당 1부 23:25 백중환의 골목시당 2부	8:00 탐라의 뱀에, 귀리 9:00 KCTV 뉴스 9:30 인터뷰 제주공간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KCTV 디류스페셜 14:30 세계의 99방송 15:10 제주도농업기술원영농교육 16: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8:00 탐라의 뱀에, 귀리 19:00 KCTV 뉴스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0:50 UHD 제주스낵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6일

김종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문서 계약이 끝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계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폐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처가나 시댁과 다툼이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자식 문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쉼과 함을 잊지 마라.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무단중 주의, 부부금실 절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38년 자식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건강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 고장이나 업무의 하자로 지연이 된다. 74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뀌려고 마음이 동요.

39년 산 정상을 밟아만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51년 내일을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 무리수 금지. 63년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분주하다. 도움을 요청하라. 75년 군중심리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냉철하고 철저한 본인관리가 요구. 87년 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40년 강한 추진력이 결과를 얻는다. 밀어붙이는 파워의 승전보가 있다. 52년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64년 물질적·정신적문제도 같음이 생긴다. 직업으로 갈등은 불리. 76년 친정의 소식을 접하거나 여행, 외출을 한다. 88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자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충고는 자제. 65년 화근이 말에서 시작되니 언행에 신중하라. 작은 실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충고는 사람에게서 시작됨을 알라.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조정 모임을 적극 응하라. 66년 남치는 만 용은 오히려 독이 되니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라. 78년 주변의 감언이설에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돌입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이 나뉠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문에 관심이 있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한방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분야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 같다. 81년 정보활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현장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 93년 마음이 편잡하고 아쉬운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

46년 애꿎은 사람에게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58년 물류업이나 유통업은 분주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70년 자격증을 한 개정도 취득하는 해로 정해본다. 82년 능률적인 학습전략이 자격증이 나 시험을 유리하게 한다. 94년 친구나 동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

47년 지갑 소지품을 분실하니 주의. 내부 소행이 될 수 있다. 5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1년 분위기에 휩쓸리면서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83년 행복에 시간이 되도록 나만의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모임에 참여함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